

대학생이 인식하는 ‘공유대학’의 의미와 역할

조은원* · 한송이**†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A Study on the Undergraduates' Perception of 'Shared Universities'

Cho, Eunwon* · Han, Songie**†

*Lecturer, Department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Semyu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 and role of “Shared Universities” a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Currently, shared universities are being promoted as an important innovative strategy to overcome the decline in the college-age population and enhance the quality of education by shar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mong individual universit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aning and value of “shared universities” a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who actually participate in shared university progra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mand side. Specifically, the study seeks to explore what students feel and experience through shared university education in order to derive implications for future shared university operations.

Keywords: Shared universities, Student experience, Student perspective, Learning outcomes

I. 서 론

2011년 TIME지는 세상을 바꿀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sharing)”의 개념을 제시했다(TIME, 2011). 개인이 소유한 재화를 개방하고 잉여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해내는 ‘공유’의 패러다임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됐다. 숙박, 교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 모델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고등교육 생태계에도 ‘공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게 되면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학부 시스템으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논의가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대학 모습에서 탈피한 고등교육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공유대학은 이러한 대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혁신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배상훈, 2020).

공유대학은 대학 간 벽을 허물고, 개별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대학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디

지털신기술혁신융합대학 사업(COSS),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RIS) 등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간 소모형 경쟁을 지양하고, 공유성장형 대학체제로의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대학 정책은 사업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조금씩 상이하나, 참여 대학 간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대학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즉,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간 인적, 물적 자원 공유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과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공유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자원을 공유하고 대학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접근이 아니다. 이미 정책적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는 대학 간 연계와 협력이 강조되고 있었으며, 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이전부터 학점교류제, 실험, 실습 기자재의 공동 활용 등의 노력이 있었다(정금현·김순남, 2005). 2018년에는 서울 소재 대학 총장을 중심으로 학점교류 확대, 연합 프로그램 운영, MOOC 운영 등을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처럼 정부와 대학에서는 공유성장, 대학 공동체 상생을 위한 대학 간 협력과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있다(조옥경, 2019).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아직까지 공유대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성과에 대한 정책적, 학술적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 정책의 일환으

Received June 26, 2023; Revised July 19, 2023

Accepted July 22, 2023

† Corresponding Author: hsiedu.3@gmail.com

©2023 Kore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로 추진되고 있는 '공유대학' 정책이 가져올 변화와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대학 간의 협력을 토대로 운영되는 공유대학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조옥경(2019)는 공유의 수준(밀도)에 따라 연계형-연합형-결합형과 같이 세 가지 형태의 공유대학 유형을 제시했다. 연계형은 협약(MOU)을 통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형태이다. 연합형은 참여 대학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동 관리 운영 조직을 운영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결합형은 가장 높은 수준의 모습으로 참여 대학 간 공동의 제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대부분 공유대학은 연계형으로서 학점 교류나 협약(MOU) 체결 등 낮은 수준의 공유가 이루어져 왔다. 공유대학 사업은 주관 대학을 중심으로 별도 전담 조직이 구성되고, 교육과정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연합형 혹은 결합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공유를 촉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유대학 혹은 공유교육과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대학 간 교류, 연계,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의 공유와 협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기(김재웅 외, 2006; 황인성, 2017; Thomas, 2015; Williams, 2017), 대학 간 협력 실태를 파악해보는 연구(정금현·김남순, 2005; 최덕철, 2003)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밖에 지방대학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써 공유대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김수진 외, 2022; 오영재, 2004; 이은화·강이화, 2022; 민철구 외, 2011).

한편 대학 간 협력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를 살펴보는 연구들도 일부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다른 배경의 집단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고차원 학습,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등을 함양하였다(Parker & Pascarella, 2013). 또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동료 학생들과 교류를 통해 진로성숙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이효선, 2018), 낯선 환경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송이·조성범, 2022). 이는 학생 구성이 다양해지면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공유되고, 지적 자극으로 이어짐에 따라 배움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박은숙, 2020; 조옥경, 2019; Gurin et al., 2002)

그러나 기존 논의는 주로 정책이나 대학 조직 차원의 관점에서 대학이 처한 입학자원 급감, 대학 서열 문제 완화, 교육 경쟁력 제고 등에 따른 대학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대학 경영 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원칙에 따른 교육적 성과와 현재 고등교육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공유대학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일부 학생 차원에서 대학 간 연합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나, 이는 단순히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낮은 수준의 공유대학 형태이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공통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공동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결합형 '공유대학' 맥락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인식을 통해 공유대학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학 간 연계와 협력을 강조하는 여러 형태의 '공유대학'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대상자인 학생들이 공유대학을

통해 어떤 교육적 경험을 하고, 성과를 도출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정책 효과성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및 구성원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학생이 인식하는 '공유대학'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대학'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참여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 디지털기술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이하 A사업단)에 참여한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A사업단은 2021년 신기술 분야에 강점을 가진 7개 대학의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었다. 사업 선정 이후 공유 교육 플랫폼을 통해 7개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방향 중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했다. A사업단은 단순한 학점교류 형태의 수업 공유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교과, 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합형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사례로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A사업단에서 공유 수업을 듣고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 중 최종적으로 연구 목적에 동의한 20명의 학생들이다.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Samples

		표본수(명)	비율(%)
성별	남성	14	70
	여성	6	30
학년	1학년	0	0
	2학년	2	10
	3학년	8	40
	4학년	10	50
전공계열	인문사회	1	5
	자연공학	18	90
	기타	1	5
합계		20	100

2.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공유대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학생들이 작성한 성찰적 에세이를 연구 자료로 활용한 문서 분석 연구(document research) 방법을 적용하였다. 문서 분석은 기록물을 통해 현상은 개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서, 관찰이나 면담이 지나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보완해준다(김영천·정상원, 2015; 한송이·황수정, 2021).

본 연구에서 수집한 질적 자료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0명의 학생이 작성한 성찰적 에세이 20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4개월 동안 공유대학에 참여하며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공유대학의 의미와 가치’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였다. 학생들은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에세이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자료에는 학생들이 공유대학을 통해 경험한 활동과 깨달은 점, 공유대학의 의미와 역할, 가치 등에 대한 생각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었다. 해당 자료는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딩 및 범주화를 수행했으며, 연구 참여자 정보는 모두 개별 코드를 부여하여 익명 처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Hatch(2002)의 귀납적 분석 방법을 수행하였다. 교육학 전공 박사급 연구자 2인은 수집된 자료를 포괄될 정도로 반복적으로 읽으며 개방 코딩을 수행하였다. 개방 코딩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 2인은 함께 모여 유사한 의미로 묶일 수 있는 부분들을 분류하며 하위 코드를 설정하였다. 이후 여러 번 읽으며 연구자 간 합의를 거쳐 중위 코드와 상위 코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과 고등교육을 전공한 박사급 전문가 2인에게 내용과 결과를 검토받았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공유대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A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공유대학의 역할, 공유대학을 통한 교육적 경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후술하였다.

Table 2 Analysis result

구분	주요 결과
공유대학의 역할	단일 대학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 기회
	산·학·연의 경계를 허무는 징검다리
	대학의 벽을 허문 융합 교육의 장
공유대학을 통한 교육적 경험	낯선 환경에서 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경험
	학제 간 융합의 중요성을 느끼는 경험
	공동 진로를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 경험

1. 공유대학의 역할

가. 단일 대학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 기회

A사업단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이지만, 본 소속 대학에 관련 교과목이 개설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계를 느껴, 공유대학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공유대학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7개 대학에서 운영 중인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대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교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특히 자신의 전공과 다른 전공 과목도 수강할 수 있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교

수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기회가 확대된다. 이러한 교육의 다양성 확보는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확장까지 이어지게 된다.

“배터리나 연료전지와 같은 2차전지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학과 전공 수업에는 관련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 나와 같은 경우 외에도 본 전공이 과연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하나의 경로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학생 1)

“나는 공유대학을 기회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학과가 나노에너지공학과라서 에너지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학부 특성상 모든 에너지 분야를 다룰 수는 없었다. A사업단을 통해 우리 학과에서 주로 다루지 않는 에너지 분야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분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학생 15)

“나 또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지만 에너지 변환과 저장에 관심이 생겨 A사업단 강의를 다수 수강하며 본 전공에서 배울 수 없었던 많은 내용을 학습하였고 새로운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학생 11)

또한, 공유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생 소속 대학의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 학생들은 부담없이 공유대학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점 채우기용 수강 신청이 아닌, 자신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듣고 싶은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있었다.

“소속 대학교 내에서만 전공 공부를 하던 이전과 달리 다른 대학교에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희망하는 전공 강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어 학점을 채우기 위한 전공 이수가 아닌 진정으로 듣고 싶은 강의를 다른 대학교들의 강의를 통해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생 18)

나. 산·학·연의 경계를 허무는 징검다리

A사업단은 신기술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 멘토링, 포럼 등을 열고 산·학·연 경계를 아우르는 학습의 장을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실제 학생들은 공유대학이 산·학·연 교류의 장을 만들어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실무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유대학에서는 Coweek 아카데미를 포함해 전국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에게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고 있다.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취업 역량 강화 세미나 ... 공유대학에서 진행하는 Coweek 아카데미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 결과 취업 진로 등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나누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학생 11)

“여러 형태로 공유대학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차전지 특강, 에너지기업 관련 특강 등 여러 특강을 진행해왔다. 이런 특강들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실무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과 관련 종사자들과의 하나의 연결점, 징검다리를 잇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한다.” (학생 18)

(학생 13)

2. 공유대학을 통한 교육적 경험

가. 낯선 환경에서 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경험

참여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공유대학이라는 ‘낯선 환경’에 참여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나’에 대해 알아가는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의 전공과 다른 학문을 공부하거나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만나는 등 일반적인 대학교육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공유대학이라는 ‘낯선 환경’은 학생들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학생 2는 연구 대상자 중 유일한 인문사회계열 학생이다. 공유대학을 통해 학문 특성이 다른 공학 분야에 대해 학습하고, 관련 학과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자신이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공유대학은 학생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전과 다른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학생 18은 공유대학이 학생과 분야의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존 대학에서는 현장 전문가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대학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공유대학은 특정 분야 인력양성을 목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대학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Co-week, 산학 Expo 등 인텐시브한 산학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공유대학이 재정 지원사업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기존 대학교육보다 산·학·연 협력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다. 대학의 벽을 허문 미래 융합 교육의 장

면담에 참여한 공유대학 학생들은 대학의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대학, 학과에 관계 없이 특정 학문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만나 들을 수 있는 ‘융합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특히 A사업단에는 7개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지리적)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A사업단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에 따라 온라인 수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혁신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나에게 공유대학은 ‘돋보기’이다. 관심 없다고 생각하며 등한시 했던 학문을 공유대학에서 새로 접하게 되면서 눈길이 가게 되었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비로소 나는 누구인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공유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의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유대학이라는 돋보기를 통해 더 성장하는 ‘나’가 되길 바란다.” (학생 2)

“대학 간의 틀을 깨고 전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적, 지역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교육기관들이 연구와 교육을 융합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 공유대학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원하는 세부과목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고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그 분야의 핵심인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 (학생 17)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나의 임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에너지 관련 사업을 생각하면 이공계열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지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에도 그런 마음으로 프로그램 참가에 망설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어떤 사업이나 학문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해당 사업이 시민들에게 널리 퍼지고 전달되려면 결국 그 안에는 인문학적 요소들이 많이 첨가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학생 2)

“공유대학은 이러한 경계를 넘어 자신의 학교와 전공에 무관하게 국내 최고 전문가에게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고 관련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 11)

나아가 학생 13은 A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7개 개별대학의 인재상, 교육목표 등의 차이를 허물고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어울려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공유대학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공유대학이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통의 교육 비전, 목표와 철학 등을 공유함으로써 밀도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학생 8은 비슷한 환경에 살아오다가 이전과 다른 환경을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했다고 답했다. 공유대학 특성상 졸업 학점 이상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 전공과 다른 분야를 학습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유대학에 참여하는 것은 A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야에 관심이 많고, 다른 학생들보다 열의를 갖고 학업에 임하기 때문이다. 즉, 학생들의 인간 집합적(human aggregate) 환경이 달라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서로 자극제가 되어 이전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Strange & Banning, 2015). 이처럼 공유대학은 구성원의 특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에 익숙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그 속에서 새로운 자신의 역할과 가치관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마다 키우려는 인재상, 교육방식, 가치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차이를 허물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된 분야에서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공유대학의 존재의미라 생각한다.”

“학생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늘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열정적이고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할 경험이 정말 많지 않았었다. 그런데 정말 열정적이고 멋진 사람들과 비슷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비슷한 고민과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면서 항상 스스로 이정도면 잘했지 이정도면 됐지 하면서 스스로 안도할 동안 나는 조금은 도태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버텨내면서 돌파구를 찾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 스스로도 정말 담대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학생 8)

나. 학제 간 융합의 중요성을 느끼는 경험

공유대학은 소속 대학 및 전공에 제한 없이 신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대학 수업에는 다양한 전공,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이 모이게 된다. 따라서 공유대학에서는 학습을 매개로 학제 간 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특히 단순 학점 교류와는 달리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융합의 가치, 융합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자신의 본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이론을 기반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학문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성공적인 공유대학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과 및 비교과 운영 시 의도적으로 융합팀을 구성하는 등의 교육적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과의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다양한 생각이 만난다는 것의 힘을 알게 되었다. OO대학교 교수님의 말씀처럼 단순히 하나의 학과가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이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을 나누어서 좋은 효율의 연구가 나온다고 했듯이 공유대학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섞어 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 3)

“우리는 같은 건물을 바라보더라도 서로 관심있는 분야와 할 수 있는 역할이 달랐고 그래서 서로 보충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었다. 따라서 미래에 에너지 분야에서 일을 할 때 다른 분야 사람들과의 협업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느꼈고, 이렇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다른 전공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혼자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학생 14)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공유대학 수업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분야별 협력을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문 간 연계를 잘하는 사람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이러한 융합적 경험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다양한 학과, 학교 사람들을 만나면서 학제간 융합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더 절실하게 느낀 것 같다. 한 가지 분야만 잘한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다. OO대학교에서 보았지만 여러 학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점을 잘 찾는 사람이 모두가 원하는 인재라고 생각된다. A사업단은 많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융합적 인재가 되기 위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전공 수업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람과 학문을 접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더 기를 수 있는 것 같다.” (학생 2)

다. 공통 진로를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 경험

학생들은 졸업 후 신기술 분야에 진출하겠다는 공통된 진로를 갖고 있다. 기존 학과에서는 같은 학과라도 진로가 다양하다. 그러나 A사업단은 특정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참여 학생들은 유사한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참여 학생들은 비슷한 고민과 생각들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이는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으로 이어졌다.

“하나의 인적 네트워크가 연결되었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훗날 에너지신산업이라는 업계로 취업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활동들을 계속해 나아간다면 다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이라 생각한다.” (학생 18)

구체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신기술 분야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이러한 공통 진로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면서 진로를 구체화하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을 배우고 이해한 것도 좋았지만 좋았지만, 에너지신산업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만날 수 있었던 있었던 친구들과 다양한 의견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있었던 게 나에게 너무 뜻깊었다.” (학생 9)

“모두가 ‘불확실한 진로’라는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터놓고 내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나 또한 솔직한 입장에서 그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이 바로 공유대학이 궁극적으로 갖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학생 1)

IV. 결론 및 제언

대학 생존의 위기 상황 속에서 ‘공유대학’은 대학 혁신의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대학 간 ‘공유’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과 정책, 제도가 대학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즉, 공유대학은 대학 혁신을 위한 하나의 정책 및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대학이 하나의 정책이자 제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실제로 공유대학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공유대학이라는 하나의 정책적 틀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한데 모여 교류하고 성장하는 교육의 장(場)으로서의 의미와 역할, 가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신기술혁신공유대학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사업단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A사업단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 20명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

들이 작성한 성찰적 에세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대학의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크게 3가지의 소주제로 나타났다. 우선 학생들은 공유대학을 통해 단일 대학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산업체나 연구기관과 교류할 수 있었다는 데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이는 공유대학 사업의 취지와 일관된 결과이다. 단일 대학 차원의 교육은 자원의 한계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학습자들도 공유대학을 통해 교육 경험의 내용과 범위가 확장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공유대학 사업도 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됨에 따라, 반드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 다양한 학교 밖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 경험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공유대학을 통해 대학의 벽을 허문 진정한 융합 교육의 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언급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공유대학은 단순히 여러 대학과 학과가 만나는 일차적 결합이 아닌,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차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참여 학생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다양한 대학들의 교육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미 고등교육맥락에서는 단일 학문 분야만을 통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을 토대로, 학문 간 결합을 통해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융합교육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김혜영, 2013). 대학 차원에서도 학과 간 전공을 허물고 연계전공이나 융합전공을 개설하고, 교과목을 활발히 개발해 나가고 있다(박일우, 2016; 홍병선, 2016). 공유대학은 이를 대학 단위로 확장한 새로운 대학 간 융합교육 모델의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공유대학은 기존에 이루어져 오던 학점교류와 같은 낮은 수준의 교류에서 한 단계 진화된 결합형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대학과 대학이 하나의 연계 전공을 개설하고 각자의 강점 분야별로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학습자들을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융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공유대학을 통한 교육적 경험은 크게 3가지의 소주제로 구분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7개 대학 컨소시엄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얻었으며,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융합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이는 대학 간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는 학생들을 동기부여시키고 '전환(transition)'을 경험하게 하는 새로운 자극이자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된다(한송이·조성범, 2022; Parker & Pascarella, 2013).

또한 연구 참여 학생들은 공통 진로를 중심으로 관심있는 학생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일종의 진로 분야 학습공동체가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공동체는 공통 주제에 대해 다양한 학생이 협력하여 공동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윤정현 외, 2020). 동료와의 학습은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공동체 의식,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다(김민지·서은희, 2020; 양시운 외, 2018; 유경아, 2017; 유지원, 2020). 특히 공유대학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다는 의견에 주목할 만하다.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던 참여자들은 공유대학에서 막연했던 진로를 구체화하고, 다른 학생을 통해 진로에 대한 확신이나 활동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최혜린 외(2022)는 학습공동체를 통해 진로를 탐색, 구체화, 전문화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공유대학은 진로교육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공유대학을 정책이나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의 교육의 장(場)으로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역할을 탐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교육 정책은 무엇보다 학습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 공유대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보다는, 관심 분야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현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공유대학은 '공유'를 통해 어떤 교육적 성취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유대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교육이 어떻게 구성되고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해주어야 하는지 등 질적 차원에 대한 심층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의의는 단순 수업 교류를 넘는 보다 폭넓은 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참여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서도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하였으나,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참여 등 수업 외 측면에서 이루어진 교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공유대학에서 학습자 차원의 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존에 이루어진 단순 학점교류와는 다른 '공유대학'으로서의 차별화된 교육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학점을 이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유대학이라는 틀 안에서 다양한 학습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대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 간에 지속적인 교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활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유대학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과 발전을 경험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공유대학을 통해 학생들의 무엇을 경험하고, 어떠한 성장을 이루는지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공유대학에 참여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주관 부처나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에 따른 질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방법뿐만 아니라 면담이나 간담회, 에세이 공모전 등 질적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단일 사업단의 사례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 중에 1학년이 포함되지 않고,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매우 적은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본 연구 결과 해석 및 활용에 주의해야 할 점이다. 최근 인문사회 분야 공유대학 사업이 시작된 만큼, 향후에는 다양한 특성을 지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경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러 공유대학 사업단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의 양상을 탐구하고, 공유대학 교육 경험을 유형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지·서은희(2020). 동료 피드백을 포함한 학습공동체 활동이 대학생 핵심역량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9), 1033-1052.
- 김수진 외(2022). 국립대학 간 공유대학 활성화 방안 연구: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교육경영*, 25(3), 167-194.
- 김영천·정상원(2015).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문서분석. *교육문화연구*, 21(6), 253-285.
- 김재용 외(2016).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및 학점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부.
- 김혜영(2013). 융합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융합교육의 방향과 기초융합교과 설계에 대한 제언. *교양교육연구*, 7(2), 11-38.
- 민철구 외(2011).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대학 역할정립과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은숙(2020). 대학생의 융합역량 증진을 위한 PBL(Projectbased learning) 수업 효과 연구.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4(1), 31-53.
- 박일우(2016). 대학에서 융·복합 교육의 실상과 그 해법. *교양교육연구*, 10(1), 349-378.
- 배상훈(2020). 공유대학: 개념, 모델, 그리고 성공 요건. *대학교육*, 210, 74-81.
- 양시윤 외(2018). 대학의 자율적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역량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9), 141-164.
- 오영재(2004). 지방 사립대학 대학연합모형 설계: 대전광역시 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2(2), 279-305.
- 유경아(2017). 대학 튜터링 프로그램이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8(2), 145-172.
- 유지원(2020). 대학생의 학습공동체 참여 양상에 따른 학업성취도 변화 분석: A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51(1), 29-52.
- 윤정현 외(2020). 대학 비교과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운영 사례 분석. *교육문화연구*, 26(4), 141-164.
- 이은화·강이화(2022). 대학간 교양교육 공유 협력 현황과 과제. *교양교육연구*, 16(2), 81-93.
- 이효선(2018). 대학생의 다양성수용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폐기학습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1), 205-212.
- 정금현·김순남(2005). 국내 대학 간 교류·협력실태 분석. *한국교육*, 32(1), 1-22.
- 조옥경(2019).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연구 (RR2019-15). [KEDI] 연구보고서, 1-428.
- 최덕철(2003). 대학 간 협력체제 개발과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대학연합(RUCK)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경영*, 32, 437-460.
- 최혜린·최정운·김남희(2022). 대학생의 학습공동체 참여 동기, 경험, 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A 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53(4), 1-36.
- 한송이·조성범(2022). 타 대학 교류 경험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대학 연합 비교과 프로그램 사례. *교양교육연구*, 16(2), 391-404.
- 한송이·황수정(2021). 대학생의 '유의미한 학습경험'에 대한 인식 탐색. *문화와 융합*, 43(12), 1273-1288.
- 홍병선(2016). 현행 융합교육에 대한 진단과 융합역량 제고 방안. *교양교육연구*, 10(4), 13-35.
- 황인성(2017). 대학 간 협력, 연합대학의 현황과 과제. *대학교육*, 197, 74-79.
- Gurin, P. et al.(2002). D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Theory and impact on educational outcom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72(3), 330-366.
- Hatch, J. A.(2002).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Parker, E. T., & Pascarella, E. T.(2013). Effects of diversity experiences on socially responsible leadership Over four years of college. *Journal of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6(4), 219-230.
- Thomas, M. K.(2015). *Between Collaboration and Merger: Expanding Alliance Strategies in Higher Education*. New York, NY: TIAA Institute.
- Time(2011). 10 Ideas That Will Chang the Workd. https://content.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0,28804,2059521_2059717_2059710,00.html. (2023.06.04. 인출)
- Strange, C. C., & Banning, J. H.(2015). *Designing for learning: Creating campus environments for student success*. John Wiley & Sons.
- Williams, J.(2017). *Collaboration, alliance, and merger amo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ECD Education Working Paper No. 160. OECD.



조은원 (Cho, Eunwon)

2021년: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교육행정) 박사졸업

2021년~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관심분야: 학습경험, 고등교육, 공유대학

E-mail: ewcho_@korea.ac.k



한송이 (Han, Songie)

2018년: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교육행정) 박사졸업

2019년~현재: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학습경험, 고등교육, 공동체

E-mail: hsiedu.3@gmail.com